

## 축구 손상에서 발생한 외측 반월상 연골 전각부 파열

을지외과대학 노원을지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최남홍

### 서 론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은 대부분 후각부에서 발생되고, 전각부의 파열은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축구에 의해 발생한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전각부 파열 환자에서 임상적의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재료 및 방법

환자의 연령은 14세에서 37세로 평균 22.3세였고 전부 남자였다. 중학교 축구 선수 1명, 대학 축구 선수 10명, 프로 축구 선수 4명, 클럽 축구 선수 3명이 었다. 수술 전 증상은 1주일부터 3년으로 평균 4.9개월 이었다. 동반 손상으로는 연골 연화증 3명, 내측부인대 파열 2명,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2명 등이었다.

### 결 과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전각부 파열에 동반된 파열은 중각부 6명, 후각부 1명이었다. 전각부 파열은 15명에서 white zone, 3명에서 red-white zone, 1명에서 red zone에서 발생하였다. 수술 방법은 연골판 부분 절제술이 9명, 연골판 봉합술이 5명,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봉합술이 3명에서 시행되었다. 봉합술이 시행된 8명 중 6명에서 all inside, 2명은 outside-in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 결 론

축구 선수에서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전각부의 파열은 흔히 발생하며, 대부분 white zone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급성 손상이기 보다는 반복적 손상에 의한 파열로 생각된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아마도 경기 도중 킥을 하는 순간, 슬관절이 과신전 되면서 대퇴골 외과와 경골 외과 사이에서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압박을 받아 파열되는 것으로 생각된다.